

초등학생용 독서성향척도 개발 및 타당화

김 영 식(성균관대학교)
노 상 충(성균관대학교)*

<< 요약 >>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독서성향척도의 개발과 측정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초등생들의 독서교육이나 아동의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독서태도(읽기태도), 독서동기(읽기동기) 및 독서지수 등에 대한 개념 등으로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됨으로써 교육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혼선의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독서행동에 대한 포괄적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척도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문항들 중 72문항을 1차 추출하였고, 최종 45문항으로 서울소재 초등학교 5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서태도, 독서기피성향, 경쟁적독서, 동료와 상호작용, 부모와 상호작용, 독서의 즐거움 및 독서의 목적의식의 7요인 29문항의 독서성향척도(RDQ)를 개발하였다. 또한 본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서 서울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 309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서성향척도(RDQ)의 7요인 구성요인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독서성향, 독서검사도구, 독서태도, 독서성향척도, 요인분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린이들은 여러 경험을 독서를 통해 얻는다. 특히 이런 경험은 미래의 사회인으로서는 필요로 하는 여러 지식이나 인지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과정이

* 교신저자 : 노상충,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jamesroh001@gmail.com

다. Ragan(1953)는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복잡한 사고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능력을 성취하고 건강한 사고력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Piaget와 Vygotsky의 인지 및 사회 발달적 관점에서도 독서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최영환, 2007). 또한 지식이 범람하는 사회에서 어떠한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체화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성향과 무관하지 않고 이러한 독서성향에 따라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있음을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성숙한 아동들에게는 성숙하고 올바른 사고관을 길러줄 수 있다(정선희, 1996; 이충일, 2002; 임경일, 1998; Burke & Eileen, 1990). 독서를 통한 여러 다양한 간접 경험은 창의성을 산출(김경수, 2001; 김명희, 2001; 이우석, 1999)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은 기존 지식에서 창출되는 경우가 많은데(Weisberg, 1993) 그런 지식은 독서를 통해 배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독서는 자아개념(정유진, 1998)과 진로 인식(전미경, 2003) 및 학업성취(조중렬, 이임숙, 2004; Rowe, 1991)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박진섭(1979)이 지적하고 있듯이 어려서부터 이러한 독서성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독서 지도를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독서에 관한 연구는 독서태도, 동기 및 지수 등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Mckenna, Kear & Ellsworth(1995)는 초등학생용 독서태도척도(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ERAS)를 개발함으로써 초기 독서연구에 대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여가적 읽기태도(recreational reading attitude)와 학습적 읽기태도(academic reading attitude) 두 가지 하위 요인만을 제안하였으며, 독서에서 갖는 활동이나 여러 상호작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아이들의 독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친구, 부모 및 선생님 등은 독서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Wigfield와 Guthrie(1995, 1997)는 독서동기(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 MRQ)연구에서 small group 인터뷰를 통해 효능감, 도전심, 호기심 및 몰입 등 53문항으로 구성된 11개 독서동기요인을 제안하였다. 이 MRQ 연구는 아이들의 독서동기에 대한 속성과 독서동기가 어떻게 독서행동과 연계되는지를 밝힌 선도적 연구였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73문항의 요인분석을 105명의 표본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 요인 추정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다. 권민균(2002, 2005)은 초등학생 읽기동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Wigfield & Guthrie(1995, 1997)의 MRQ 초기 73문항을 10요인 39문항으로 축소한 한국형 MRQ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한국문화에 적합한 읽기동기 척도를 타당화 하는데 있어서 축소된 문항이 요인수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 요인의 지표변수는 적어도 3문항 이상 적재되어야 하는데 (Thurstone, 1947), 하위요인 중 '순응'과 '중요성'요인은 문항수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게 요인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진선희(2006)는 독서성향을 거시적과 미시적으로 나누어 환경, 흥미, 동기, 태도, 인식, 및 선호도 등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접근방식이지만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예, 권미경, 2014; 박경빈, 권혁민, 2011; 양미석, 2012)에서도 독서흥미, 독서환경, 독서경험 등의 다양한 독서행동들을 탐색하였으나 척도의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아 있다.

성향(disposition)이란 태도(attitudes), 사고방식(mindsets), 그리고 신념(beliefs)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Coiro, 2008). O'Byrne과 McVerry(2009)는 성향을 "지식, 기능 및 이해 습득을 촉진하고(Ennis, 1987) 행동의 패턴을 이끄는(Carr, 1999; Claxton, 1999; Carr & Claxton, 2002) 마음의 습관(Katz, 1988) 혹은 행동과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Ajzen(1991)은 특정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행동의도가 선행하고 그 행동의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및 효능감을 원인변인으로 하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성향을 성격과 태도를 포괄하는 전반적 개념으로 조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정의되었던 독서동기와 태도 및 지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독서성향'을 탐색하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기존의 독서동기나 독서태도 연구들에서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사용해왔지만 측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척도의 타당화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 개발된 독서관련 척도들이 국내 연구에 적용될 때 이문화 관점에서의 타당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부분은 적용가능성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독서성향에 대해서 구성개념을 포괄적으로 재정의 하고, 그에 대한 타당화된 척도를 개발하여 아동들의 독서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줄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1에서는 기존의 독서동기 및 태도에 대한 측정 도구들을 탐색하여 유의미하게 요인구조로 수렴될 수 있는 문항들을 추출하고, 어떠한 요인 구조를 가지는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2에서는 앞서 탐색된 독서 성향의 요인구조가 다른 샘플에서도 유의미한 요인구조로 확인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타당화 작업을 통해서 독서성향의 요인구조와 측정문항을 확립하고자 한다.

II. 연구1 독서성향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독서성향척도(Reading Disposition Questionnaire: RDQ)를 개발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독서동기', '독서태도', '독서지수', '독서성향'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문항들 중 1차로 72문항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문항에 대하여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이 각 문항에 대한 세부 내용분석을 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거한 총 45문항을 확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2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으로, 설문을 실시하기 전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총 52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명의 자료를 제외한 500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각 측정 문항들은 Likert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인구통계적 수치는 표1에 제시하였다.

2. 분석방법

추출된 문항들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빈도(퍼센트)	학년	빈도(퍼센트)
남자	244(48.8%)	1학년	30(6%)
여자	256(51.2%)	2학년	56(11.2%)
		3학년	100(20%)
		4학년	96(19.2%)
		5학년	105(21%)
		6학년	113(22.9%)
합계	500(100%)	합계	500(100%)
결측	0	결측	0
총합	500	총합	500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공통요인분석과 사각회전(geomin)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최적 요인구조의 확인을 위해 적합도지수를 활용하여 최종 요인구조를 확정지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M-plus version 6.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분석(α)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요인수효 결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의 현저한 차이는 7요인까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표2 참조), 스크리 검사(Cattell, 1966)에서도 7요인까지 기울기가 급한 드롭이 지속되며 이후에 평준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누적분산 비율을 살펴보면 7요인까지의 누적분산비율이 82%로 나타났다. 이는 공통요인분석에서 전체 공통분산의 75-85%정도가 설명되면 그 다음에 추가되는 퍼센트가 아주 크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요인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므로(Gorsuch, 1983) 본 연구에서는 7요인을 유효 요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수효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평행성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평행성 분석은 경험 자료의 고유치가 무선자료의 고유치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요인수효까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Montanelli & Humphreys, 1976). 분석결과 무선자료의 고유치는 .807558로 나왔으며 경험 자료에서 이 수치보다 높게 유지되는 요인수효는 7요인이었다(7요인= .829786).

표 2. 요인별 고유치 및 누적분산비율(축소상관행렬로 SPSS를 사용하여 분석)

요인	고유치	차이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1	12.75704	10.67522	0.52391	0.52391
2	2.081813	0.427363	0.085497	0.609407
3	1.65445	0.548155	0.067945	0.677352
4	1.106295	0.106329	0.045434	0.722786
5	.999966	0.102834	0.041067	0.763853
6	0.897132	0.188801	0.036844	0.800696
7	0.708331	0.037293	0.02909	0.829786
8	0.671038	0.06981	0.027558	0.857345
9	0.601228	0.089353	0.024691	0.882036
10	0.511875	0.130383	0.021022	0.903058

다음으로 M-plus 6.0을 사용하여 6요인, 7요인 및 8요인 모형에 대한 합치도 및 해석가능성을 비교하여 최종요인수효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M-plus 6.0을 이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8요인 모형에서 합치도가 가장 좋으나 최종요인행렬에서 로딩 값의 크기가 0.3또는 0.4이상인 요인계수가 3개 이상 발견되어야 그 요인을 해석할 수 있는데(Thurstone, 1947), 8요인 모형에서는 지표변수가 3개 이상 묶이지 않은 요인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탐색요인 분석에서의 최종모형은 전반적 합치도가 6요인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고 문항의 내용적 해석도 타당한 7요인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최종 선택된 7요인 모형에서 요인계수가 .35 이하거나 결친 구조의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표 3. 모형별 합치도 결과

요인수효	χ^2 (df)	CFI	TLI	RMSEA	SRMR
6	1811.645 (735)	0.885	0.845	0.054	0.036
7	1619.175 (696)	0.901	0.860	0.052	0.032
8	1401.813 (658)	0.920	0.880	0.048	0.030

추출된 7요인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요인에는 독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6개 문항들이 추출되었다. 그 내용들은 독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이나 의지 및 믿음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문항에서 .35이상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내적신뢰도계수 $\alpha=.783$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태도 요인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제2요인에서는 독서기피 성향과 관련된 3개의 문항들이 추출되었다. 이들의 문항들은 독서에 대해 능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쉽게 흥미를 잃고 기피하는 성향의 문항들로 추출되었다. 문항 모두 .45를 넘는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요인의 내적신뢰도계수 $\alpha=.678$ 을 나타냈다.

제3요인은 경쟁적 독서성향을 나타내는 4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타인보다 독서를 더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 더 노력하는 모습들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에서 .5를 넘는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내적신뢰도계수 $\alpha=.862$ 를 나타냈다.

제4요인은 친구들과 독서한 것을 서로 같이 공유하거나 다른 동료의 독서를 도와주는 성향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4요인에서도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

량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신뢰도계수 $\alpha=.784$ 를 보이고 있다.

제5요인은 부모님과 독서에 대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된 6문항들로 추출되었다. 5요인에서는 모든 문항들이 .4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내적 신뢰도계수 $\alpha=.754$ 를 보이고 있다.

제6요인은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만족이나 기쁨과 관련된 3개 문항들이 추출되었다. 6요인에서도 모든 문항들이 .4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 내적신뢰도계수 $\alpha=.867$ 을 나타내고 있다.

제7요인은 독서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한 기대로써 목적의식을 가지고 독서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4개의 문항들로 추출되었다. 모든 문항들이 .35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내적신뢰도계수 $\alpha=.777$ 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요인은 '독서태도' 6문항, 2요인은 '독서기피성향' 3문항, 3요인은 '경쟁적 독서성향' 4문항, 4요인은 '동료와 상호작용' 3문항, 5요인은 '부모와 상호작용' 6문항, 6요인은 '독서의 즐거움' 3문항, 7요인은 '독서의 목적의식' 4문항 등 총 29문항을 독서성향척도(Reading Disposition Questionnaire: RDQ)로 확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독서성향을 '태도와 동기를 포함한 여러 상황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독서행동'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세부 문항과 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표4에 제시하였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부하량
요인1.	
V3. 책을 많이 읽다보면 분명 나는 능숙한 독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522
V5. 나는 독서를 통해 어렵고 몰랐던 것을 배운다.	.370
V6. 나는 책이 흥미로우면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다.	.622
V11. 나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책을 읽는다.	.452
V18. 나에게서는 능숙한 독자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413
V51. 나는 책을 읽을 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읽기 위해 노력한다.	.580
요인2.	
V7. 나는 책을 읽고 난 후에 보상이 없으면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635
V8. 나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읽기가 싫다.	.559
V9. 나는 복잡한 이야기를 말하는 책은 별로 재미없다.	.451
요인3.	
V25. 나는 책을 잘 읽는 사람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602
V26. 나는 친구들보다 더 잘 읽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526

문항	요인 부하량
V27. 나는 읽기에서 또래 친구들 중에 최고가 되고 싶다.	.895
V28. 나는 학급에서 가장 책을 잘 읽는 학생으로 인정받고 싶다.	.855
요인4.	
V19.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575
V20. 나는 친구가 읽기 학습 활동하는 것을 돕고 싶다.	.585
V21.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나누기를 좋아한다.	.691
요인5.	
V38. 내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서는 참 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다.	.578
V40.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책을 선정해 주신다.	.474
V41.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책을 읽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신다.	.575
V42. 나의 부모님은 책을 읽을 때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401
V43. 나의 부모님은 내가 책을 읽고 나면 칭찬을 해주신다.	.783
V45. 부모님은 책 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시고 격려해 주신다.	.482
요인6.	
V46. 책 읽기는 즐거운 일이다.	.725
V47. 책을 읽으면 정신이 집중되고 마음이 기쁘다.	.611
V48. 책을 읽고 나면 만족감이 들고 뿌듯하다.	.400
요인7.	
V22. 나는 나의 읽기 성적이 궁금하며 알고 싶다.	.350
V70. 나는 책을 읽고 난 후에 내용에 대하여 퀴즈를 통하여 이해도를 확인받고 싶다.	.619
V71. 나는 책을 읽고 난 후에 책 읽기를 통해 나의 단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734
V72. 책을 읽고 난 후에 간단한 테스트를 하는 것은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706

표5에서는 독서성향척도의 7개 하위요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호상관을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척도 내 요인 상관이 $r=-.12 \sim r=.67$ 로서 요인 간 변별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내적일치도 분석결과 모든 요인은 Van de Ven 과 Ferry(1980)가 제시한 수용 가능한 수준인 .60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독서성향지수 하위요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호상관(N=500)

요인	평균	SD	1	2	3	4	5	6	7
1. 독서태도	3.46	0.74	(.783)						
2. 독서 기피성향	2.56	0.86	-.40**	(.678)					
3. 경쟁적 독서성향	3.30	1.00	.51**	-.18**	(.862)				
4. 동료와 상호작용	2.90	0.98	.47**	-.24**	.42**	(.784)			
5. 부모와 상호작용	3.07	0.86	.41**	-.12**	.31**	.40**	(.754)		
6. 독서의 즐거움	3.42	0.99	.67**	-.46**	.44**	.48**	.38**	(.867)	
7. 독서의 목적의식	3.33	0.90	.49**	-.25**	.49**	.48**	.38**	.44**	(.777)

주1. ()안은 요인척도의 신뢰도 α 계수

주2. ** $p < .01$

III. 연구2 독서성향척도의 타당화

연구2에서는 연구1에서 개념화하고 개발한 독서성향척도 다른 표본에서도 7요인 모형으로 확인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15년 6월 중순부터 7월 15일까지 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33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명의 자료를 제외한 3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6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독서성향척도 측정문항은 연구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7개 차원의 2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 $\alpha = .918$ 이었다. 각 차원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독서태도에 대한 $\alpha = .889$, 독서기

피의 $\alpha = .851$, 경쟁적 독서의 $\alpha = .849$, 동료와 상호작용의 $\alpha = .821$, 부모와 상호작용의 $\alpha = .857$, 독서의 즐거움의 $\alpha = .846$, 독서의 목적의식의 $\alpha = .859$ 로 각각 나타났다. 각 문항들은 Likert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빈도(퍼센트)	학년	빈도(퍼센트)
남자	111(35.9%)	1학년	1(0.3%)
여자	198(64.1%)	2학년	39(12.6%)
		3학년	83(26.9%)
		4학년	60(19.4%)
		5학년	77(24.9%)
		6학년	49(15.9%)
합계	309(100%)	합계	309(100%)
결측	0	결측	0
총합	309	총합	309

3. 분석방법

독서성향척도의 타당화를 위해서 7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M-plus 6.0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요인의 수가 7개로 많은 요인이 하나의 개념으로 묶였기 때문에 4문항 이상씩 되는 독서태도, 경쟁적 독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독서의 목적의식 요인은 문항을 2-3문항씩 묶어(item parceling)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합도지수를 이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TLI, CFI, RMSEA 및 SRMR을 기준으로 했으며 TLI와 CFI는 1에 가까울수록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로 보고(이순목, 2000)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타당화된 7개 하위요인이 독서성향이라는 상위개념의 요인으로 수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요인분석(second-order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분석결과의 합치도지수를 살펴보면, 표집자료로 전집자료를 추정할 때의 오차를 나타내는 지수인 RMSEA값이 괜찮은 적합도기준인 .08이하로 나타났으며(Browne &

Cudeck, 1983), 표준화된 SRMR값 또한 일반적으로 좋은 합치도 기준으로 제시되는 .08(이순목, 199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합치도지수도 CFI=0.947, TLI=0.931로 좋은 적합도지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7요인의 구성개념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얻어진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는 표7에 제시하였다.

표 7. 독서성향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합치도지수(M-plus)

합치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SRMR
검증모형	382.315 (131)	0.947	0.931	0.079	0.034

표 8. 독서성향지수에 대한 2차 요인모형 분석 결과 합치도지수

합치도 지수	χ^2 (df)	CFI	TLI	RMSEA	SRMR
검증모형	482.664 (145)	0.929	0.916	0.087	0.041

다음으로 7개 요인이 '독서성향'이라는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수렴이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M-plus를 이용하여 2차 요인모형분석(second-order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8에서 볼 수 있듯이 RMSEA, CFI, TLI, SRMR 등 모든 합치도 지수들이 좋은 적합도지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서성향은 7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2차 요인구조로서 타당함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서지수에 대한 2차 요인분석 구조모형은 그림1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독서성향척도가 7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독서성향 7요인 모형의 타당함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또한 독서성향이라는 상위개념으로 7요인이 잘 수렴됨을 검증하여 독서성향척도(Reading Disposition Questionnaire: RDQ)의 7요인 구조가 타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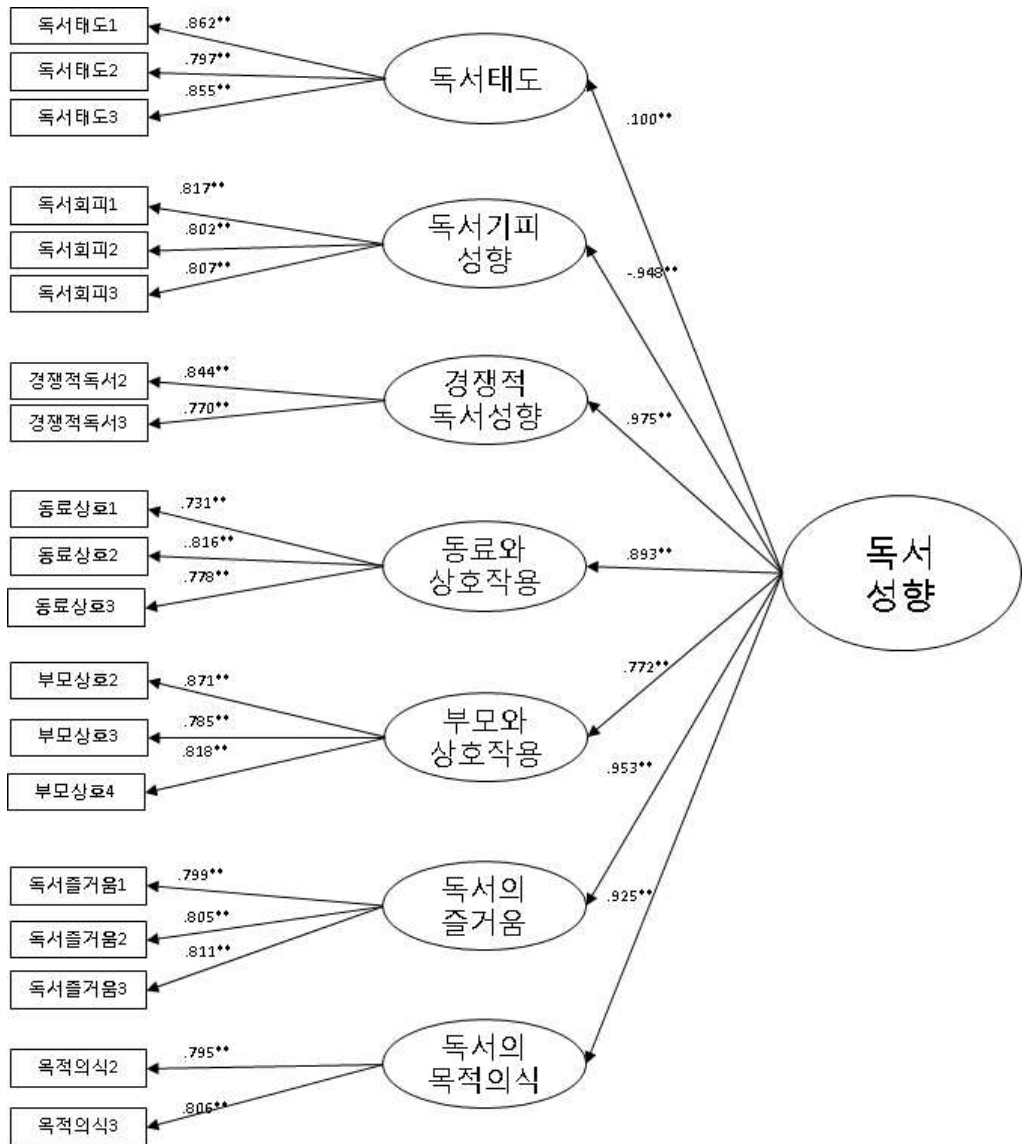


그림 1 독서성향에 대한 2차 요인분석 모형

IV. 종합논의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진행되었던 독서동기, 태도 및 성향을 측정함에 있어서 타당도가 미흡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포괄적 독서성향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그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연구 1의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독서성향은 총 7개의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의 요인 구조는 각각 독서태도, 독서기피성향, 경쟁적 독서, 동료와 상호작용, 부모와 상호작용, 독서의 즐거움 및 독서의 목적의식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2에서 척도의 타당화를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7개인 요인 구조가 타당함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독서관련 연구들이 독서태도, 동기 및 지수 등으로 분절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측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척도의 타당화에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서관련 연구들을 개관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측정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둘째,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독서관련 척도들은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서 개발된 독서관련 척도들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문화적 관점에서 척도의 적절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국내 환경에 맞는 요인구조 확인과 타당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독서관련 연구의 확장에 신뢰로운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용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일부 독서관련 연구들이 독서 환경, 독서 횟수 및 독서의 양 등 실태적 접근에 국한됨으로써 독서가 아동 발달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적 ·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타당화된 보다 포괄적이고 심리측정적인 구성개념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독서가 아동발달에서 중요한 지적영역, 사회적 영역, 감성적 영역 및 공간영역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인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독서는 성장기 아동들의 지적, 사회적, 감성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독서성향검사 도구(RDQ)는 다양한 실증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일선 학교 현장에서 독서성향과 학업성적이나 태도,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제안된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확장된 RDQ 문항을 개발하여 타당화 검증을 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들의 독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훈련을 위한 정교한 프로그램을 계

획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 형식이므로 된 검사도구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 표기하거나 오해석하여 설문지를 잘 못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신이 기대하는 항목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항목에 표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 논문 접수 : 2016년 2월 10일 / 수정본 접수 2016년 5월 24일 / 게재 승인 5월 25일
- 김 영 식 :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성균관 대학교 Ph.D. Candidate. 전공분야는 심리학. 관심분야는 조직 내 갈등, 작업동기, 교육심리 Kimys2010@gmail.com
- 노 상 충 :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성균관 대학교 박사(Ph.D.). 전공분야는 심리학. 관심 분야는 Neuro-feedback, Brain-based 가속학습법, 일/학습동기 with EEG(뇌파). jamesroh001@gmail.com

<참고문헌>

- 권미경(2014). 수학 영재와 일반 학생의 독서성향과 학업적 성취동기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민균(2002). 초등학생의 읽기동에 관한 연구: 읽기동기의 구성요인, 학년과 성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3), 17-33.
- 권민균(2005).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읽기 동기 구성요인과 읽기 능력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43(1), 53-67.
- 김경수(2001). 초등학교 아동의 독서성향과 창의성향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명희(2001).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독서와 발표 활동에 관한 반성적 실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 교육대학원.
- 박경빈, 권혁민(2011). 영재아와 일반아의 독서성향과 진로태도성숙 및 자기 주도적 학습 특성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1(1), 1-17.
- 박진섭(1979). 중학생의 독서성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미석(2012). “초등학생의 독서성향, 읽기 동기, 읽기 태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순목 (1990). 공변량 구조분석. 서울: 성문사.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우석(1999). 초등학교 아동의 독서성향이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충일(2002). 초등학교 아동의 독서성향과 사고성향 및 사고력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경일(1998).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미경(2003). 초등학교 아동의 독서성향과 진로인식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희(1996).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지도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석사학위논문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유진(1998). 초등학교 아동의 독서양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증열, 이임숙 (2004).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 독서, 학업 효능감 및 학업성적간의 인과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17(1), 127-143.

- 진선희(2006). 독서성향 면에서 본 어린이 독자.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6, 113-161.
- 최영환(2007). 독서의 인지적 영역 발달과 사회적 관점. 한국독서학회: 독서연구, 17, 41-64.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itor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Publication.
- Burke, L., & Eileen, M. (1990). *Literature for the young child* Needham MA: Allyn and Bacon.
- Cattell, R. B. (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 245-276.
- Coiro, J.(2008).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reading comprehension, frequency of internet use, and adolescents' dispositions toward reading onlin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Orlando, FL.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 McKenna, M. C., Kear, D. R., & Ellsworth. R. A. (1995). Children's attitudes toward reading: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30(4), 934-956.
- Montanelli, R. G., & Humphreys, L. G. (1976). Latent roots of random data correlation matrices with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on the diagonal: A Monte Carlo study. *Psychometrika*, 41(3), 341-348.
- O'Byrne, W. I., & McVerry, J. G.(2009). "Measuring the dispositions of online reading comprehension: A preliminary validation study", In J. Worthy, B. Maloch, J. V. Hoffman , D. L. Schallert, & C. M. Fairbanks(Eds.), *57th Yearbook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Oak Creek, WI: National Reading Conference, Inc.
- Ragan, W. B. (1953). *Modern Elementary Curriculum*. New York: HENly Holt and Co.
- Rowe, K. J. (1991). The influence of reading activity at home on students' attitudes towards reading classroom attentiveness and reading achievement: An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1, 19-35.
- Thurstone, L. L. (1947). *Multiple Factor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 de Ven A. H. & Ferry, D. L. (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 Wigfield, A. & Guthrie. J. T. (1995). *Dimensions of children's motivations for reading: An initial study*(Research Rep. No. 34). Athens, GA: National Reading Research Center.
- Wigfield, A. & Guthrie. J. T. (1997). Relat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to the Amount and Breadth of Their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 420-432.
- Weisberg, R. W. (1993). *Creativity: Beyond the myth of genius*. New York: W. H. Freeman & Co.

Abstract

A Validation Study for the Survey of Elementary Student's Reading Disposition

Kim, Young Shik(Sungkyunkwan University)

Roh, Sang Choong(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omprehensive structure of elementary student's reading disposition and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pool of preliminary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the past research used.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Reading Disposition Questionnaire(RDQ) was conducted in order to assess the underlying structure of the instrument.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500 elementary students by survey questionnaires. The result showed 7 factors, 29 items. Study 2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RDQ based 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309 elementary students by survey questionnaires. The result indicated a satisfactory fit for the 7-factor model of RDQ, and a seconda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the 7-factors were well converged into the higher factor of the whole reading dispositio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reading disposition, reading disposition questionnaire, factor analysis, reading test instrument